



어색한 '어머니'

한국에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하면 뜻하지 않게 '어머니' 라는 호칭을 자주 듣는다. 내가 나 이 먹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, 나를 부를 때 그럴 듯한 호칭을 찾지 못한 탓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. 거기에 더해 요즘은 '아줌마' 라는 호칭은 가 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추세라 그 대신 일견 무난 해 보이는 '어머니' 란 호칭으로 부르는 것인지도 모른다. 하지만 아직까진 '어머니' 라고 불리는 게 참 어색하고 불편하다.

며칠 전 아이들을 데리고 고기집에 갔는데 한 남자 직원이 뜨거운 음식을 가져와 식탁 위에 올려 놓으며 "뜨거우니 어머니 쪽에 놓아주세요!" 라고 말하는 뭔가 어색한 기분이 들었다. 분명히 친절하 어졌고 내 양옆으로 아이들이 있었으 니 어찌면 자연스러운 호칭이었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갑자기 고기를 먹다 말고 '어머니' 보다 더 적절한 단어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에 몰두했다.

아이들 학교나 어린이 집, 아이들과 관련된 곳 에서 나를 '어머니' 나 '00엄마' 라고 부르는 데 는 위화감이 전혀 없지만 식당, 마트, 버스 안, 그 량 마주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면 뭔가 허를 찔린 듯한 기분이 든다. 사실 아이가 낫이나 되고, 아이들도 제법 컸으니 누군가 나를 부를 때 '어머 니' 라고 해도 그리 억울하지 않을 법도 한데 아 직도 기분은 썩 유쾌하지는 않다.

나보다 세 살 위인 우리 시누이는 미혼이다. 멋 지게 일하는 전문직 골드미스이자 네 명의 조카 를 둔 고모인데 평소 아이들은 안 좋아해도 조카

들은 예쁘다며 직접 놀이공원 연간패스까지 끊 어서 애들을 데리고 다니는 열성을 보인다. 그런 데 조카들을 데리고 나가면 자꾸 남들이 '어머 니' 라고 불러서 난감하다는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다. 일일이 "전 애네 엄마가 아니고 고모예 요. 심지어 아직 미혼이랍니다." 라고 설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나보다 훨씬 억울하고 난감할 만 도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.

호칭도 시대에 따라 달라졌고 변화했으니 어머 니라는 호칭이 정확히 언제부터 대중화된 것인 지는 잘 모르겠다. '어머니' 라는 호칭은 상대방 에 대해 좀 더 예의 바르게 접근하기 위해 생겨 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, 누군가의 어머니일 수 는 있어도 자신의 어머니가 아닌 사람에게 어머 니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해 보 이지 않고 또, 평생 그 누구의 어머니로 살아본 적 이 없는 사람이 아이와 동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'어머니' 라고 불린다

면 당혹스럽기도 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.

또 미국처럼 남녀노소 상대방을 지칭할 때 'You' 라고 하지 못하고 연령에 따라 성별에 따 라 다르게 불러야 하는 것이 한국의 관습이다 보 니 나이 든 여성을 편의상 '어머니' 로 통칭해 부 르는지도 모르지만, 지금이라도 나처럼, 혹은 아 이들의 고모처럼 '어머니' 라는 호칭이 낯설거나 당황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더 적절한 호칭을 찾 거나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?

나를 "어머니!" 라고 불러주는 사람은 네 명의 아이들만으로도 난 이미 충분하다.

*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 활했던 필자는 작년 여름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. '나 는야 1.5세 아줌마는' 재미교포1.5세 아줌마인 필자가 한국 생활 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. <편집자 주>



당신의 생명보험은 안녕하십니까?

평생 커버 된다는 종신생명보험! 커버리지 만료기간의 진실!!!
5년 이상된 종신생명보험, 꼭! **재** 확인 하셔야 합니다!

생명보험점검 (Policy Review)을 통해서

- 보험 커버리지 기간 확인 - 필요시 조정
- 보험에서 용자 (Policy Loan), 혹은 인출했을 경우 보험 커버리지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 확인 - 필요시 조정
- 투자수익율, 이자율의 변동이 보험 커버리지 기간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 확인 - 필요시 조정
- 보험료 납입 만료기간 확인 - 필요시 조정

Death Benefit Living Benefit 생명보험의 사망보상금 + 생전보상금 옵션

- 중대질환 (뇌졸중, 암, 심장마비 등) 투병시 보험금 지급 옵션 - 생활비 보조수입
- 만성질환 간병비용 보험금 지급 옵션
- 평생 은퇴수입옵션 (Lifetime Income Rider): Tax Free Income



21년 경험의 생명보험 리뷰 전문가 Simon Song에게 문의하세요.



• Financial Professional • CA Ins. Lic. # 0C13056 • Email : simonsong.h21@gmail.com
Simon Song (626)888-3649 | 3580 Wilshire Blvd, Suite 900-29
Los Angeles, CA 90010